

지역 소식통

“국외출장비 등 반납” 부안군의회 간담회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공무원의 출장비 등 관련 예산 6300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군의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원 공무원출장여비 3000만원, 의원 공무원출장 수행비 1200만원, 의원과 직원의 위탁 교육비 910만원 등을 포함한 총 6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한 예산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급재난생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쓰이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부안군의회 전원은 4월 의정활동비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금액인 330만원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부안군, 5월 4일까지 접수

부안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7만 49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군청 민원과(☎ 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 명품수박 산지 탄력

## 수박연합회 ‘고창수박’ 지리적 표시제 등록나서 농촌개발대학 수박과 운영·현장건설링 등 추진

대한민국 여름철 과일의 대명사인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명품 수박 산지(產地)의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

수박연합회가 고창 수박 지리적 표시제 의미와 등록 절차 등을 안내받고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을 통해 고창수박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창군 수박연합회가 고창 수박 지리적 표시제 의미와 등록 절차 등을 안내받고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을 통해 고창수박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산지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제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표시하는 제도다. 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해 품질과 개성을 높이는 지리적 표시제도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고창수박은 10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수박의 대명사다. 최근에는 (주)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 고창수박을 활용한 ‘수박 블렌디드’ 음료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고창에선 현재 965ha에서 875농가가 수박을 재배중이며, 지난 2월 말에는 고창수박연합회가 출범했다. 연합회와 농기센터는 명품수박 명성 유지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 및 농촌개발대학 수박과 운영, 현장건설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완료되면 지역 수박의 부가가치가 향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상의 품질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추진으로 옥정호 수질 자율관리 활동에 돌입했다.

##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가동

### 정읍시,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읍시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추진으로 옥정호 수질 자율관리 활동에 돌입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1억3천600만원(도비 95, 시비 41)의 예산을 투입해 광역상수원의 안정성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지역주민 14명으로 구성해 4월부터 9월까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며 환경 정비 활동을 벌이게 된다.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은 상수원 관리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불법 낚시·어로행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등 수질 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하게된다.

또한, 방치 및 무단 투기 쓰레기와 농업폐기물 수거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화 활동도 전개한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인근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수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일지리를 구하기 어려운 농촌의 일지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옥정호 지킴이들은 152건의 불법 낚시행위 등의 환경 감시 및 계도 활동과 약 4.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옥정호 주변 환경개선에 일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활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소상공인 대출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정읍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 서류의 발급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

이번 신규 설치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위한 증명명 발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설치됐다.

이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들의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 해소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각종 증명명 서류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설치 장소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연지아트홀이다. 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발급이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추후 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동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총 11대의 무인민원발급

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초산동 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1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그중 정읍시청과 정읍 수성농협 앞,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 위치한 3대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이 불편함 없이 대출신청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정감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정읍천 둔치 어린이 축구장 새단장 ‘눈에 띄네’

### 1억4500만원 들여 꽃잔디 등

정읍시가 시민 최대 휴식처인 정읍천 둔치에 사업비 1억4,500만 원을 들여 어린이 축구장을 새단장했다.(사진)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깔끔한 경관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시는 익산지방방목관리청의 협조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풋살장 정식규격(가로 40m×세로 20m)에 맞게 우레탄 포장을 완료했다.



더불어, 주변에 꽃잔디를 식재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했다. 또한, 이전에 아름다운 정읍천을 만들기 위해 샘골다리 인근(시기동주민센터 앞 하천법

면) 약 1,800㎡의 면적에 식재한 꽃잔디가 최근 활짝 피어 꽃과 함께 정읍천을 더욱 아름답게 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초산교 아래 하천 둔치에 어린이 축구장을 새롭게 단장해 어린이들이 운동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꽃잔디가 번식하면 더욱 아름다운 정읍천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코스모스, 꽃잔디 등을 추가로 식재해 시민에 사랑받는 정읍천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창군은 2020년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6월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이며 신고 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4월까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만 허용 한다.

5~6월에는 렌트홈은 물론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기초지자체(시·군·구청)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자

진신고서·임대차계약 신고서·표준 임대차계약서(일반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부 가능)등 제출서류를 신고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 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시스템 031-719-0511, 제도 1670-8004) 또는 고창군청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063-560-23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